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에게만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었던,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질환(성인병)이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인병 예비군 또는 약년성 성인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어린이 성인병에 대하여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자료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린이 성인병,

왜 관리해야 하는가(4)

- 어린이 성인병 예방검진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9.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방의학사업중앙회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의 성인병 예방검진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 특징은 먼저 「성인병예방조사표」라는 양케이트에 의해 가족력이나 생활습관 행동양식 등을 파악해 검사의 데이터와 병행하여 함께 18항목에 대한 성적(안)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점수를 내어 합계 점수에 따라 A, B, C, D, N(정상)의 5단계의 관리지도구를 떠나가도록 하고 있다.

가족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느 연구에서 5~19세의 어린이들에 대해, 양친 또는 가족에 성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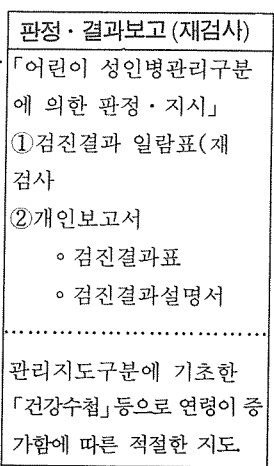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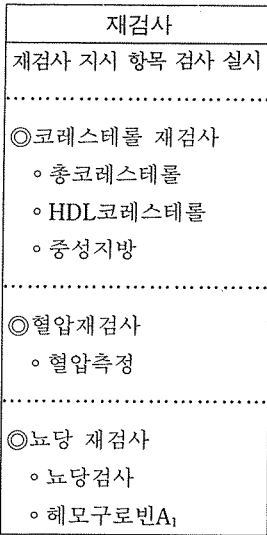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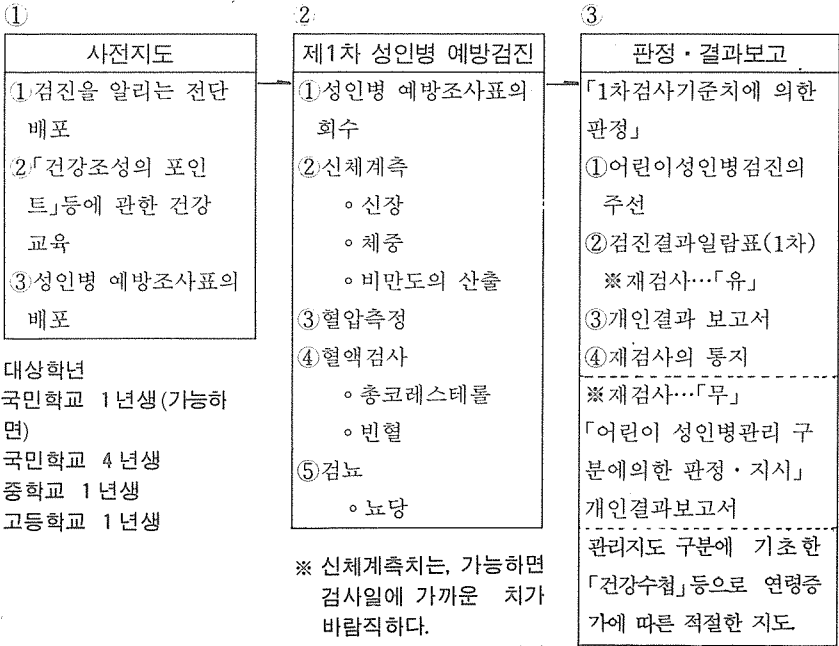
어린이를 전혀없는 어린이와 비교한 결과 몇배의 위험율이 있다고 한 보고를 근거로 해서 성적화 한 것이다.

또다른 하나의 특징은 검진에 앞서 어린이들에게 「건강조성의 포인트」라는 소책자를 배포하고 검진의 의의나 성인병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양케이트를 회수한 후 신체계측을 하여 비만도를 내고 혈압을 재며 혈액검사로 빈혈과 코레스테롤치를 알아보고 당을 알아본다. 최초의 대상 학생은 생식적으로는 국 4, 중1, 고1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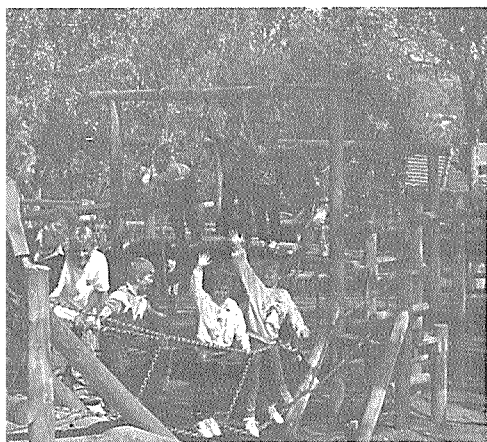
여기서 CUT of POINT를 어느 쪽으로

그림 어린이를 위한 성인병 예방검진 실시방법(안)



※ 관리지도구분

A(의학적관리의 필요)
B(정기적 경과 관찰)
C(식사·운동을 중심으로한 생활지도)
D(관리불요)
N(정상)



선진국에서는
 민간보건단체의
 보건활동사업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에서 얻어지는
 기초자료로
 정부에서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할 것인가, 어느 치가 안된다 하는 것은 별 표에 나와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학교보건회에서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와같은 것은 전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하는 것도 좋으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채혈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앙케이트에 무엇인가 체크 되어진 대상자만 코레스테롤을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활용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결과상으로 의심되는 자에게는 재검사를 해보고 또 정밀검진을해서, 그의 결과에 따라 지도를 한다.

관리지도구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제법 나쁜 상태의 것이 「A」, 정기적인 경과관찰이 「B」, 식사·운동등을 중심으로한 생활지도가 필요한것이 「C」라고 구분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이와같은 관리지도구분에 따라 충분히 관리해나가는 것이 어린이 성인병 예방검진을 오래동안

계속 실시할 수 있는 골격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봉사 없으면 학교의 교육을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역시 사후 지도는 중요한 것이다.

10. 연구에 기대하는 것

이상에서, 주로 코레스테롤 검진의 의의에 대하여 줄거리를 역어왔으나 실제로는 지금 예방의학사업중앙회 각현의지부에서 실시하고있는 어린이성인병의 검진은 나름대로 정착된 단계로 대단한 의미를 지녀왔기 때문에 어쩌면 몇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코레스테롤치가 유동되어 왔었는가, 혹은 운동부족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비만어린이가 늘고 있는 것일까 감소되고 있는가 라는 지역별의 상황을 알수 있게 될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본 전국적으로서의 성인병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적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코레스테롤이 높은 어린이, 혈압높은 어린이 혹은 비만의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국가로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기초적인 자료가 될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를 올바르게 실시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적은 규모에 있어서의 조사나 검사뿐일때는 잘 진행되나 막상 많은 학교집단에서 나름대로 이러한것을 각 현장에서 실시한다고 하게되면 상당히 큰 일이어서 아주 작은 일의 미스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하나 한가지의 검사 데이터라는 것이 쌓이고 쌓여지게 되면 대단히 크나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강연을 마치고자 한다.

매듭말 // // // // //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어린이 성인병 예방검진관리제도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면서 옛날 중국의 夏 나라 우(禹)임금이 치수할때 나온 서전(書傳) 낙서가 문득 생각되어 감히 소감을 말하고자 한다.

선진국에서는 민간보건단체들의 보건활동사업이 활발하여 이들에게서 얻어지는 기초자료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속히 민간보건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부시책에 채택되고,

건강검사의 결과는
한순간에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하나 하나가 쌓여지면
그것은 중요한 건강
데이터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

99

이를 토대로 보다 친취적인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덧붙인다면 근래 우리나라도 새로운 질환의 변천에 따른 새로운 방향의 질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그동안 일선보건요원이나 각급 학교 양호교사들도 예방의학적 건강관리 정착에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관련 단체의 협조체제구축과이를 통한 선진국형 건강관리의 정착은 모든 국민과 보건관계인의 새로운 관심거리이며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건강관리 협회는 어린이 시절부터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건강점검체계(Healthmonitormg system) 제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각계에서는 거듭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 국민피부에 닿는 건강관리사업이 일익발전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옛말에 좋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있듯이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지도록 건협은 일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마희연 역 예방의학저널
'88. 9. 15자 231호 전제